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19가합587293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윤석, 김교문, 김태원, 김민식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빈

변론 종결 2020. 9. 11.

판결 선고 2020. 10. 16.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206,138,248원 및 그 중 202,989,267원에 대하여 2019. 1. 27.부터 2019. 12. 19.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B 사이에 2019. 4. 1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취소하고,
나.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9. 4.18. 접수 제2708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8. 5. 3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주식회사 C으로부터 받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199,000,000원, 보증기한 2019.5. 31.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변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이자 내지는 지연손해금, 보증원금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다음날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보증료율에 연 1,000분의 5를 가산한 요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등에 적용되는 이율은 2018. 2. 1.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피고 A이 2019. 3. 31.부터 주식회사 C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는 등의 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19. 11. 27. 피고 A을 대위하여 C에 대출원리금 202,989,267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미수추가보증료는 1,463,870원, 구상금 채권의 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 미수금은 1,685,111원이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한편, 피고 A은 2019. 4. 18. 피고 B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206,138,248원(= 대위변제금 202,989,267원 + 추가보증료 1,463,870원 + 법적절차비용 1,685,111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202,989,26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11.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A에게 송달된 2019. 12. 19.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채권자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는 사해행위 당시에 성립되어 있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신용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피고 A이 2019. 3. 31. 대출금에 관한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위 신용보증계약에 터 잡아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원고가 2019. 11. 27. C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989,267원을 변제함으로써 실제로 구상금 채권이 성립한 이상,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2) 사해행위 및 피고 B의 악의 추정

가)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과 파주시 D 및 그 지상 건물, E 등 합계 2,882,697,800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주식회사 C에 대한 채무 202,989,267원, 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512,734,000원, F은행에 대한 채무 67,000,000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채무 266,640,000원, G은행에 대한 채권최고액 2,604,000,000원의 근저당권부 채무,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가압류채무 123,727,305원, H에 대한 가압류채무 127,000,000원,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가압류채무 255,000,000원, I에 대한 가압류채무 82,924,501원, J에 대한 가압류채무 40,000,000원, K에 대한 가압류채무 40,342,434원, C에 대한 가압류채무 107,313,363원, L에 대한 가압류채무 107,131,500원 등 합계 4,536,802,370원의 채무를 피고 A이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나) 따라서 피고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인 피고 B에게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는, 원고를 포함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정당한 채무에 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B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3) 피고 B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피고 B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B의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 B는 피고 A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9. 4. 18. 접수 제2708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기찬, 판사 권혁준, 판사 김창용

별지

부 동 산 목 록

1. 경기도 파주시 공장용지 3328㎡

2. 경기도 파주시 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1층 공장

1층 495㎡

3. 경기도 파주시 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공장

1층 165㎡

2층 165㎡

4. 경기도 파주시 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1층 공장

1층 582.4㎡

끝.